

#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 29면에서 계속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낫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남을 속여서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또 속고... 지키는데도 속고 남한테도 속고, 그것은 허영심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안수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안수기도를 해서 죽이고 또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취시킨 것처럼 놓고선 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온통 날뛰고 손을 들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마구니 밥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안수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안수기도를 해서 죽이고 또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취시킨 것처럼 놓고선 하는 문제들..."

물론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시고, 행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 나았으니 선종(善種)일 테지만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마구니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나도 악을 팔고 있습니다라는 이 악 파는 소리가 한테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로 버릴 게 없다는 그 점을 아시고, 나한테 달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비롯고 나한테 달는 말이라고 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 는 아니 됩니다. 스무드하게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서 한번 굴러놓고 좋은 말도 한번 받아 굴러 새겨 놓고 항상 그듯이 비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전에 큰 조사 스님네들은 말씀도 안 하시고 법상에 앉아서 주장자를 한번 꽂고 고선 "이 눈이 보이느냐?" 하시면 낚싯밥을 던져서 건지개끔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들 모르는 흰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손가락을 드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입이 나서 걸음 걷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맛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떠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합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것은 생각하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公)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공하고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나도 공한 줄 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主人)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몰락 놓고 '다 당신이 하는 거, 들이고 내는 걸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길잡이가 돼 주실 거다.' 하고, 또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고 안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믿고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

합니까?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똥 기저귀도 빨고 똥을 씻기도 하고, 어린애를 기를 때에 별의 별 일을 다 합니다. 굶은 일을. 어른이 돼서 애의 똥을 씻어 줘야 하고 애는 애기 때문에 또 애 노릇을 해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도 높은 게 없고 낮아도 낮은 게 없이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알고 역력하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참주인공이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홀연히, 그저 생산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까지는 언젠가는 성불할 단계가 오고 언젠가는 열반할 단계가 오죠, 어린애만 낳아 놓으면 저절로 어른 되고 늙어 죽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차원을 알고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에 백지로서 크고 작은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또다시 요다음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 모습이기

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남아있지 않아요.

그 뜻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신신에 이르기까지,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내 자리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좀 낫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흥분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높이 보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흥분하지 말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겉으로 입 밖에 내어 구역을 짓지 말고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린애들을 기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거를 드러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숨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숨기면서 거죽으로는 말없이 안으로 굴러면서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無住)

이 그때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자제히 서로 토론하지도 않고 담담법회를 안 한다면은, 주장자를 열 번을 들면 뭘 하고 백 번을 들면 뭘 하고, 또 저 해가 거꾸로 있어서 땅 속에 있다고 해도, 저 건 해가 아니라 통덩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야 어떻게 해 보죠, 그 말은 해서 뭘 합니까? 그것은 약파는 데 쓰이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뭐든지 그 방편에 속지 마시고 진실하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진실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한번 굴러 보고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굴러고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해 보십시오. '부처님 법에 하고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지 마는 우리가 만약에 마음만 있고 육신이 없다면 그것은 혼백만 있는 거지 실상이 못 됩니다. 상이 없다면 부처를 어떻게 이롭니까? 움직여 줘 없어서 어떠한 계발도 할 수가 없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낼 수가 없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있을 때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차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다고 높다랗게 앉아서 움직여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여 주며 행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고 몸 아닌 몸으로서 움직여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라는 건 몸소도 없거나 상대방이 모습을 바랄 때에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산신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에, 마음은 착하고 굽고 인정 있고 진정할 사람인데 고만 모르니깐 산신님, 나 좀 살려 주시오.' 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니깐 산신의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납득하고 '어허, 산신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고 방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산신으로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도 보이고 마리아로도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로 인해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지성스런 그 마음으로 산신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부처님을 믿게 되는 미끼가 돼 가지고 다시금 이 길을 더위잡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할 공부할 하게 되면, 그 모습도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스스로 모습이 천차만별로 화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자기가 마음 쓰기에 달려 있고 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나의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 위 법문은 1985년 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 앞으로 개척하고 제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

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도 얘기했죠? 땅에서 싸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어린애를 낳을 때 갖 나와 가지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소식 얻었다 할지라도 어린애가 갖 낳은 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내가 한 소식 했다는 말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갖 나와서 사리를 알고 판단을 할 정도로 커졌을 때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놓고 다시 또 체험하면서 놓고, 참자기가 그렇게 거침없이 여여하게 돌고 행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결론지어서 꽃아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는 얘깁니다.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늙었다가 또 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심부름 하는 걸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높은 일반

때문에 따르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여기만 내 집이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니 그저 한 천하에 이 집도 내 집이요, 저 집도 내 집인데 따르이 내가 내 몸, 내 모습을 그려서 또 내놓을 게 뭐 있었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어느만큼 크고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안다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 이어져야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이 아닐진대 당시 하나기 이 나라의 임금 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잘못돼 돌아갔을 때 내가 그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거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커버해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도 그렇지만은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돌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외관을 통해서 정신이 변해 들면서 자기가 잘못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확 고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따르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항상 없는 감옥이나 매한가지인 이런 세상에 내가 그 모습을 해 가

相布施며 부처님의 뜻이며 바로 보살의 행이라고 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억울을 거쳐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만치 내 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없다면 중치 소나무가 없고 중치 소나무가 없다면 큰 소나무가 없고, 또 빼돌려진 게 없다면 바로 선 계 없을 겁니다.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산천초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연의 조화가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빼돌려진 사람, 똑바로 끈게 올라간 사람, 옆으로 굴러진 사람, 땅 끝에 붙어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시다.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그러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행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하지 몸이 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몸은 행하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요. 우린 부처를 이룬다 하기에 이전에, 깨지기 이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깨쳐도 아하,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놓아가고 돌아가는 이 방랑 빈 그릇을, 괜히 여기다가 내 마음으로 담아 놓고 무겁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

www.hyunbulshop.com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정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에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장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난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의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의 기도
  10. 장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소로 왔다가
  13. 사랑을 쓸때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도를 버려주세요
  19. 나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청하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인 1
  22. 광명전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해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관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정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김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선도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법분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엮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